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동향

- I. 주요국 경제 동향
- II. 국내 경제 동향
-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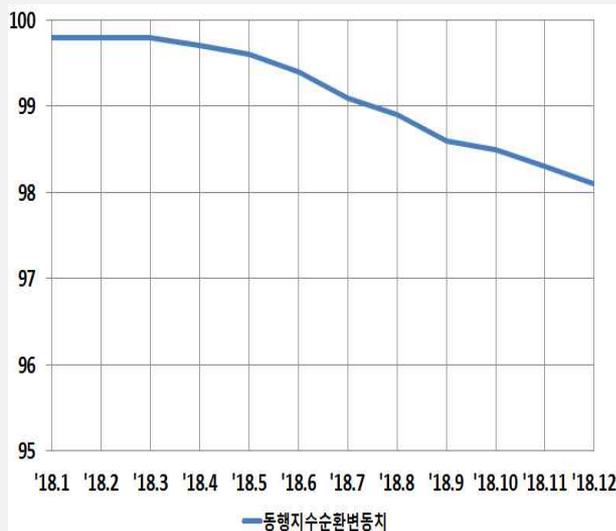
조 사 역 홍성준
(6255-5709)
sj_hong@koreaexim.go.kr

<Chart of the Month>

□ 투자 급감에 따른 경기 하강 국면 지속

- 2018년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하락한 98.1
- 경기동행지수에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8년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하락하며 경기 하강 국면 시현
- 경기동행지수 중 투자지표(실질 건설기성액), 2018년 4월 이후 감소세 지속
- (구성) 고용(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생산(광공업·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비(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투자(실질 건설기성액), 대외(실질 수입액) 등 7개 지표로 구성
- (생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8년 중 큰 변동 없는 반면, 광공업생산지수는 2018년 8월까지 회복세를 보인 후 증가세 둔화
- (소비) 소매판매액지수는 2018년 8월 들어 증가세 둔화
- (투자) 실질 건설기성액은 2018년 4월 이후 감소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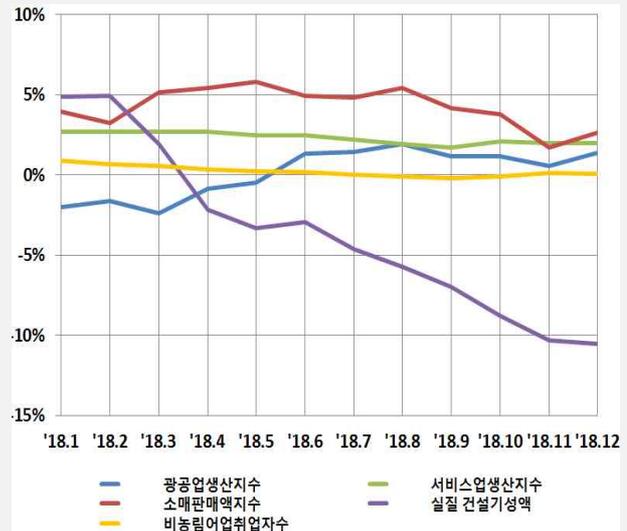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 통계청

경기동행지수 주요 구성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연방정부 섯다운('18.12.22~'19.1.25)으로 생산·소비·고용 등 실물지표 부진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생산 급감*에 따른 제조업 생산 위축으로 전월대비 감소, 12월 소매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감소하여 2009년 9월 이후 최대폭 하락. 반면, ISM 제조업지수**는 신규 주문, 생산, 수출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상승

* 미국 자동차 생산량 : ('18.12) 1,230만대 → ('19.1) 1,060만대

**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8.10) 57.5 → (11) 58.8 → (12) 54.3 → ('19.1) 56.6

- (수출입)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2,099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2,592억 달러,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493억 달러 기록(대중 무역적자(상품 및 서비스) : 379억 달러)
- (고용·물가) 1월 실업률은 연방정부 섯다운 영향으로 전월대비 0.1%p 상승한 4.0%, 소비자물가는 주거 및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2. 중국

□ 춘절 전 수출 급증으로 수출지표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경기 하향세 지속

- (산업동향)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경기확장 기준선(50)을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 지속

* 제조업 PMI(기준=50): ('18.10) 50.2 → (11) 50.0 → (12) 49.4 → ('19.1) 49.5

- (수출입)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176억 달러, 수입은 1.5% 감소한 1,784억 달러,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392억 달러 기록(대미 무역흑자(상품) : 273억 달러)
- 위안화 기준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 (물가) 1월 소비자물가는 식품, 교육·문화, 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상승

3. 유로존

□ 유로존 2018년 GDP 성장률 1.8%, 2014년 이후 최저치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은 자본재 및 비내구재 생산 감소로 전월대비 0.9% 감소, 소매판매는 의류와 전자제품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감소, 1월 제조업 PMI*는 독일이 50개월래 최저치(49.7)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하락
 - * 제조업 PMI(기준=50): ('18.7) 55.1 → (8) 54.6 → (9) 53.2 → (10) 52.0 → (11) 51.8 → (12) 51.4 → ('19.1) 50.5
- (수출입)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2,201억 달러, 수입은 1.1% 감소한 2,022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33.7% 감소한 179억 달러
 - 유로화 기준으로는 12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3.8% 증가
- (고용·물가) 12월 실업률은 7.9%로 전월과 동일, 1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상승, 에너지와 비가공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1.2% 상승

4. 일본

□ 글로벌 경기 부진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2018년 GDP 성장률 0.7%

- * 2018년 3분기 홋카이도 지진 및 오사카 태풍 피해 등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은 생산용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 생산 둔화로 전월 대비 0.1% 감소, 소매판매는 의류, 기계장치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증가, 1월 제조업 PMI*는 신규수출 주문량 급감으로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 ** 제조업 PMI(기준=50): ('18.10) 52.9 → (11) 52.2 → (12) 52.6 → ('19.1) 50.3
- (수출입) 1월 수출은 일반기계와 전자제품 수출 감소 및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한 566억 달러, 수입은 의약품과 일반기계 수입 확대로 1.4% 증가한 600억 달러 기록
 - 엔화 기준으로는 1월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4%, 0.6% 감소
- (고용·물가) 12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2.4%,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0.2% 상승하며 저물가 지속
 - 12월 유효구인배율은 1.63배(구직자 100명당 163개 일자리)로 구인난 지속

해외 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1.6	2.2	0.7	0.6	-	0.5	1.0	0.8	-	-	-	-
	산업생산(전기비)	△1.9	1.6	△0.4	1.9	4.0	0.6	1.3	1.2	1.1	0.6	0.1	△0.6
	소매판매(전기비)	2.9	4.7	1.1	2.4	4.9	0.4	1.8	1.1	0.4	0.1	△1.2	-
	수출(전년동기비)	△2.2	6.1	4.6	7.8	-	7.1	9.6	6.8	-	△0.6	-	-
	수입(전년동기비)	△1.7	6.8	5.4	8.4	-	8.5	7.5	9.2	-	3.2	-	-
	실업률	4.9	4.4	4.3	4.1	3.9	4.1	3.9	3.8	3.8	3.7	3.9	4.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3	2.1	2.0	2.1	2.4	2.3	2.6	2.6	2.2	2.2	1.9	1.6
유대지역	GDP성장률(전기비)	1.9	2.4	0.7	0.7	1.8	0.4	0.4	0.2	0.2	-	-	-
	산업생산(전기비)	1.7	3.0	1.6	1.4	1.0	△0.6	0.0	△0.1	△1.4	△1.7	△0.9	-
	소매판매(전기비)	1.6	2.4	0.5	0.3	1.5	0.1	0.8	0.0	0.6	0.8	△1.6	-
	수출(전년동기비)	0.3	11.0	13.5	18.7	7.2	19.0	9.7	2.9	△1.4	△3.1	△4.9	-
	수입(전년동기비)	△1.2	13.9	15.4	20.6	9.7	18.8	11.6	7.9	1.8	△0.7	△1.1	-
	실업률	10.0	9.1	9.0	8.7	8.2	8.5	8.3	8.0	7.9	7.9	7.9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1.5	1.4	1.4	1.7	1.2	1.7	2.1	1.9	1.9	1.6	1.4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0.6	1.9	0.6	0.5	0.7	△0.2	0.6	△0.7	0.3	-	-	-
	산업생산(전기비)	0.2	2.9	△0.1	1.2	0.9	△1.1	1.2	△1.4	2.0	△1.0	△0.1	-
	소매판매(전기비)	△0.6	1.9	△0.4	6.9	1.7	△5.4	0.5	0.5	6.8	△1.1	0.9	-
	수출(전년동기비)	2.3	9.3	6.1	12.6	5.6	9.3	9.7	3.4	0.4	△1.9	△2.0	△9.3
	수입(전년동기비)	△6.5	11.2	6.7	15.4	10.8	12.8	10.5	10.9	9.1	9.7	2.7	1.4
	실업률	3.1	2.8	2.8	2.7	2.4	2.5	2.4	2.4	2.4	2.5	2.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0.5	0.6	0.6	1.0	1.3	0.7	1.1	0.8	0.8	0.3	0.2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7	6.8	1.7	1.6	6.6	1.5	1.7	1.6	1.5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0	6.6	6.3	6.2	6.2	6.1	6.6	6.0	5.7	5.4	5.7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4	10.2	10.3	9.9	9.0	9.7	9.0	9.0	8.3	8.1	8.2	-
	수출(전년동기비)	△6.9	6.9	6.0	9.6	9.9	13.7	11.5	11.7	4.0	3.9	△4.4	9.1
	수입(전년동기비)	△5.6	16.2	15.1	13.4	15.8	19.4	20.6	20.4	4.4	2.9	△7.6	△1.5
	실업률 ¹⁾	4.0	3.9	4.0	3.9	-	3.9	3.8	3.8	-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	1.6	1.6	1.8	2.1	2.2	1.8	2.3	2.2	2.2	1.9	1.7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후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 가능

2)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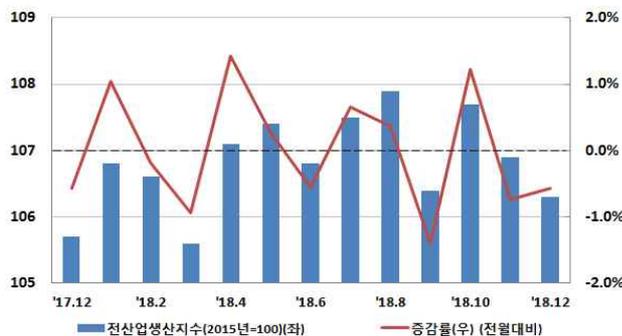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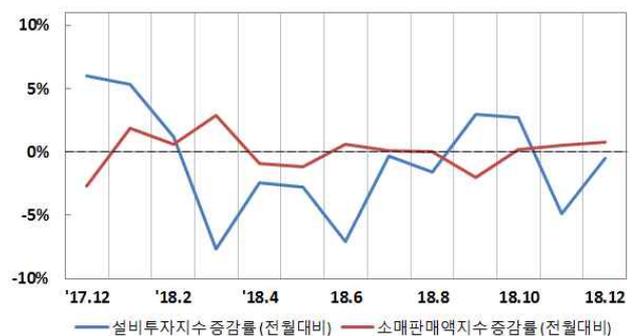
□ 소비 제외 생산·투자·경기 지표 동반 부진

- (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대비 감소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등이 줄어 전월대비 1.4%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의복 등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3%), 의복 등 준내구재(1.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 증가로 전월대비 반등
 - 12월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5.1%)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2.4%) 투자 부진으로 전월대비 0.4% 감소, 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개선되며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
 - 12월 건설기성(불변)은 최근 비주거용 건축 및 일반토목 공사 실적 증가로 전월대비 2.4% 증가
- (경기)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98.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98.5(2015=100)을 기록하며 재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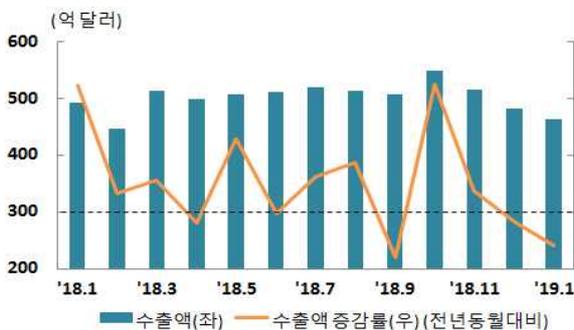
□ 수출은 통상여건 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단가 및 국제유가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한 463억 달러 기록
- 자동차*(13.4%)·자동차부품(12.8%)·철강제품(3.3%) 등에서 증가, 반도체(△23.3%)·석유화학(△5.3%)·석유제품(△4.8%) 등에서 감소
- * SUV·친환경차 중심으로 북미·유럽 시장 판매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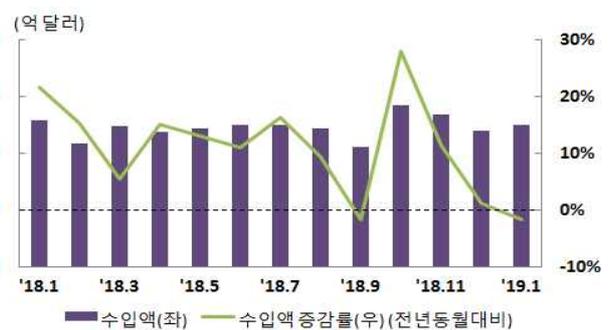
□ 수입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설비 투자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수입은 유가 하락 및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450억 달러 기록
-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은 가스(17.7%)·석탄(2.0%) 수입이 증가한 반면, 원유*(△12.8%)와 석유제품(△13.2%)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 전년동월대비 원유 도입단가 4.4% 하락, 수입액 12.8% 감소

수출 추이



수입 추이



3. 고용 및 물가

□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실업자 수 증가 등 부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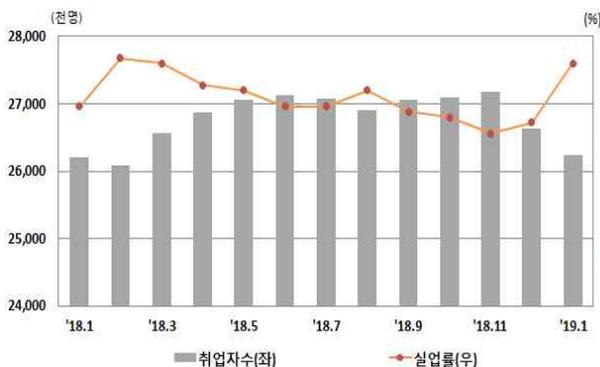
-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으로, 2018년 8월(3천명) 이후 최소
 - 1월 취업자는 2,623만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5.9%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감소세로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만 9천명 증가
-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 4천명 증가하며, 1월 기준 2000년 이후 최다
 - 1월 실업자 122만 4천명,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4.5% 기록
 - 1월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8.9%, 확장실업률은 1.4%p 상승한 23.2%, 고용률은 보건복지 분야 중심으로 0.7%p 상승한 42.9% 기록

□ 물가는 1월 기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전월대비 보건(0.9%), 오락·문화(0.7%) 등 7개 부문 상승, 통신(△0.4%), 의류·신발(△0.7%), 교통(△2.4%) 등 5개 부문 하락
 - 전년동월대비 음식·숙박(3.0%), 식료품·비주류음료(2.6%) 등 9개 부문 상승, 보건(△0.5%), 통신(△1.5%), 교통(△3.8%)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2.6%)에서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

고용 추이



소비자물가 추이



국내 경제 주요 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GDP성장률(전기비%)	2.9	3.1	1.4	△0.2	2.7	1.0	0.6	0.6	1.0	-	-	-
전산업생산지수 ¹⁾	103.0	105.5	106.2	106.0	106.6	106.3	107.1	107.3	107.0	106.9	106.3	-
증감률(전기비%)	3.0	2.3	0.9	△0.2	1.0	0.3	0.8	0.2	△0.3	△0.7	△0.6	-
소매판매액지수 ¹⁾	103.9	105.9	106.0	107.0	110.3	110.2	111.0	110.4	109.8	109.7	110.6	-
증감률(전기비%)	3.9	1.9	0.2	0.9	4.2	3.0	0.7	△0.5	△0.5	0.5	0.8	-
설비투자지수 ¹⁾	110.7	126.3	128.6	126.4	121.0	137.0	121.9	114.4	115.3	113.5	113.0	-
증감률(전기비%)	△1.3	14.1	0.2	△1.7	△4.2	8.4	△11.0	△6.2	0.8	△4.9	△0.4	-
수출액(억불) ²⁾	4,954	5,737	1,511	1,435	6,049	1,451	1,516	1,536	1,545	515	482	463
증감률(전년동기비%)	△5.9	15.8	24.0	8.4	5.4	9.8	3.1	1.7	7.7	3.6	△1.7	△5.9
수입액(억불) ²⁾	4,062	4,785	1,209	1,234	5,352	1,324	1,332	1,303	1,393	468	440	450
증감률(전년동기비%)	△6.9	17.8	17.9	11.6	11.9	13.7	13.0	7.8	12.9	11.4	1.1	△1.7
실업률 ³⁾ (%)	3.7	3.7	3.4	3.2	3.8	4.3	3.9	3.8	3.4	3.2	3.4	4.5
소비자물가지수 ⁴⁾	101.0	102.9	103.2	103.0	104.5	103.9	104.3	104.8	104.8	104.7	104.4	104.2
증감률(전년동기비%)	1.0	1.9	2.2	1.4	1.5	1.1	1.5	1.6	1.8	2.0	1.3	0.8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세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미국 단기금리는 무역협상 기대로 상승세, 장기금리는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혼조세

- 단기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 섯다운 해소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로 상승세,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신중론*(1.30)으로 하락하였으나, FOMC 의사록 내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이견** 공개 후 상승

* 미 연준, 향후 금리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것임을 밝히고, 점진적·추가적 금리인상 문구 삭제

** 일부 FOMC 위원, 당분간 금리 동결에는 동의하나 연말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 미국 국채(3M,%): (1.4) 2.407 → (2.1) 2.386 → (2.14) 2.420 → (2.21) 2.443

- 미국 국채(10Y,%): (1.4) 2.668 → (2.1) 2.684 → (2.14) 2.654 → (2.21) 2.691

□ 한국 국고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등에 따른 보합세

-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및 미 연준 금리인상 기조 변경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증가로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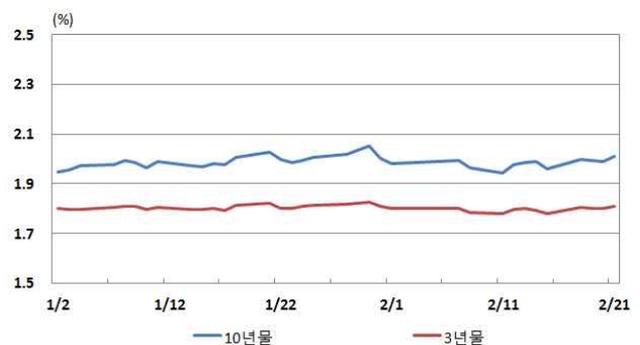
- 국고채(3Y,%): (1.4) 1.797 → (2.1) 1.803 → (2.14) 1.794 → (2.21) 1.811

- 국고채(10Y,%): (1.4) 1.972 → (2.1) 1.983 → (2.14) 1.990 → (2.21) 2.010

최근 미국 국채금리(10년물/3개월물)



최근 한국 국고채 금리(10년물/3년물)



2. 환율 동향

□ 유로화환율은 유로존 경제 둔화 및 대미 무역 갈등으로 하락세

- 유로존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유로화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

* 미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 앞 수입 자동차의 자국 안보 침해 가능성 관련 보고서 제출(2.17)

- 달러/유로: (1.4) 1.140 → (2.1) 1.146 → (2.14) 1.130 → (2.21) 1.134

□ 엔화환율은 추가 완화 정책 시사 등으로 상승세

-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BOJ) 총재의 엔화 가치 절상시 추가 완화정책 검토 발언 등으로 상승

- 엔/달러: (1.4) 108.5 → (2.1) 109.5 → (2.14) 110.5 → (2.21) 110.7

□ 원달러환율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보합세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북·미 정상회담 임박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기대로 보합세

- 원화/달러: (1.4) 1,124 → (2.1) 1,119 → (2.14) 1,125 → (2.21) 1,125

유로화환율(對달러)



달러환율(對원화, 對엔화)



3. 주가 동향

□ 다우존스는 미 연방정부 추가 섰다운 우려 해소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상승세

- 국경장벽 예산안 통과에 따른 두 번째 연방정부 섰다운 우려 해소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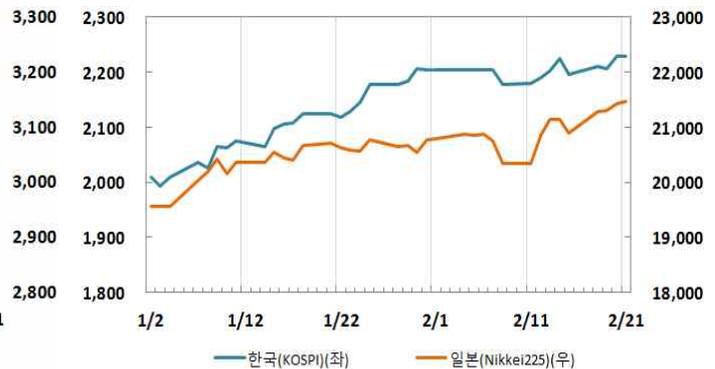
□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완화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

구 분		'19.1.4	'19.2.1	'19.2.21
미국	Dow Jones	23,433	25,064	25,851
유로	Euro Stoxx	3,042	3,171	3,264
한국	KOSPI	2,010	2,203	2,229
일본	Nikkei225	19,562	20,788	21,464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국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3/4	4/4	1/4	2/4	3/4	4/4	1월	2.21	
금리 (%)	정책	미국 FF 금리 ¹⁾	0.5-0.75	1.0-1.25	1.25-1.5	1.5-1.75	1.75-2.0	2.0-2.25	2.25-2.50		
		일본 IOER 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MRO 금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²⁾	0.497	1.041	1.376	1.700	1.912	2.196	2.355	2.384	2.443
		미국 국채(10Y) ²⁾	2.444	2.334	2.405	2.739	2.860	3.061	2.684	2.629	2.691
		일본 국채(10Y) ³⁾	0.043	0.062	0.047	0.043	0.040	0.134	0.013	0.006	△0.037
	국내 ⁴⁾	국 고 채 (3 Y)	1.638	1.888	2.135	2.216	2.122	2.005	1.817	1.809	1.811
		국 고 채 (1 0 Y)	2.074	2.379	2.469	2.624	2.556	2.357	1.948	2.001	2.010
	국제 환율 ⁵⁾	¥ / U S \$	117.0	112.5	112.7	106.3	110.8	113.7	109.7	108.9	110.7
U S \$ / €		1.052	1.181	1.201	1.232	1.168	1.160	1.147	1.145	1.134	
원화 환율 ⁵⁾	₩ / U S \$	1,206	1,145	1,067	1,064	1,115	1,109	1,111	1,113	1,125	
	₩ / 1 0 0 ¥	1,031	1,018	947	1,000	1,007	976	1,017	1,022	1,016	
주가 ⁵⁾	미국 Dow Jones	19,763	22,405	24,719	24,103	24,271	26,458	23,327	25,000	25,851	
	일본 Nikkei225	19,114	20,356	22,765	21,454	22,305	24,120	20,015	20,773	21,464	
	유로 Euro Stoxx	3,291	3,595	3,504	3,362	3,396	3,399	3,001	3,159	3,264	
	코스피	2,026	2,394	2,467	2,446	2,326	2,343	2,041	2,205	2,229	
	코스닥	631	653	798	871	818	822	676	717	747	

주 : 1) '17.03.15, '17.06.14, '17.12.13, '18.03.21, '18.06.13, '18.09.26, '18.12.19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BGN, 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

□ 유가는 1월 중순 배럴당 60달러대 진입 이후 2월말 60달러 후반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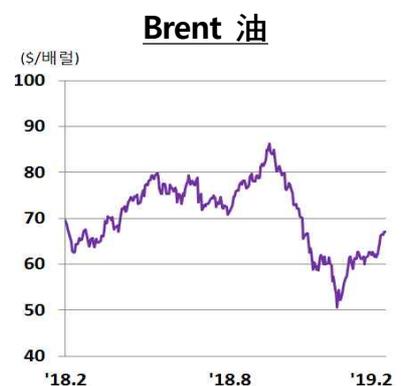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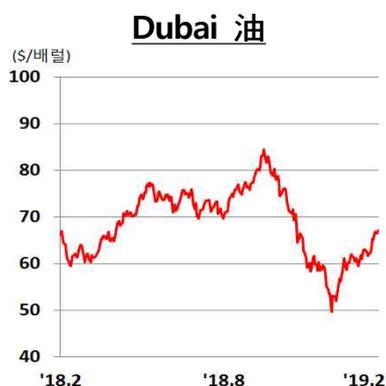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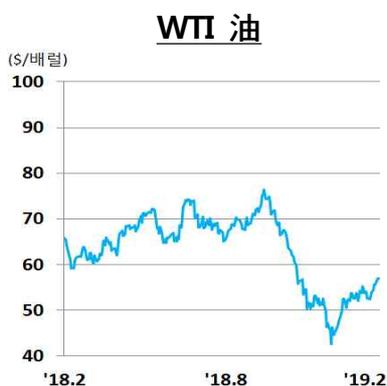
- 1월 들어 미중 무역긴장 완화, OPEC+ 감산 등으로 유가가 반등하며 1월 중순 배럴당 60달러대 진입
- 이후 IMF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글로벌 경제둔화 우려로 하락했으나, 1월말 베네수엘라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하여 1월말 60달러 초반대 기록
- 2월에도 OPEC 감산과 미국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2월말 60달러 후반대 기록

□ 천연가스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하락

-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1월 중순까지 동절기 날씨 예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인 이후 1월 말 mmBtu당 3달러선 붕괴
- 2월 들어 미국 생산량 증가 지속과 재고 감소세 둔화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2월말 mmBtu당 2달러 후반대 기록

□ 연료탄 가격은 중국 석탄 증산 등으로 하락세 전환

- 중국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 신규 허가에 따른 중국 석탄 생산량 증가, 중국 춘절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연료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여 2월말 톤당 90달러선 하회



2.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은 공급 차질로 인해 8개월래 최고치 기록

- 인도 제련소 가동 중단, 인도네시아 구리정광 수출 허가 지연, 페루 트럭 운전자 파업, 콩고민주공화국 광산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전기동 가격은 2018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 니켈은 1월 이후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

-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재고 급감,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와 함께 뉴칼레도니아 니켈광산 노조 파업이 공급 차질 유발하면서 가격 상승세

□ 아연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보합세

- 아연 가격은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하락 요인과 미·중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 재고 감소세 등 상승 요인이 혼재하며 톤당 2,700달러 수준에서 보합세

□ 철광석은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 중국 재고 비축 수요 등으로 상승

-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와 중국 춘절 이후 건설 성수기에 대비한 비축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 1월 3주차 호주 철광석 수출항구인 Cape Lambert 항구(연간 선적 능력 2.05억 톤) 화재 사고로 일시적 수출 불가 선언, 이후 브라질 Feijao 광산댐 붕괴 사태로 메이저기업 Vale의 연간 생산량 10% 감소 예상 등

□ 우라늄은 파운드당 28~29달러 수준에서 보합세

- 2018년 중 메이저 우라늄 생산기업(Cameco, Kazatomprom 등)의 감산 정책,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일본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나, 지난 11월 이후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파운드당 28~29달러 수준에서 보합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4	2/4	3/4	4/4	1월	2.21
유가 (\$/배럴)	WTI	53.72	60.42	64.94	74.15	73.25	45.41	53.79	56.96
	Dubai	53.83	64.33	65.33	75.86	80.03	52.86	61.82	67.12
	Brent	56.82	66.87	69.34	79.23	82.73	53.80	60.84	67.07
천연가스(\$/백만BTU*)		3.724	2.953	2.733	2.924	3.008	2.94	2.814	2.724
연료탄(전력용)(\$/ton)		92.00	104.88	91.36	115.3	113.03	100.68	97.44	89.66
우라늄(\$/lb)		20.4	23.9	21.0	22.7	27.5	28.9	28.95	28.75
전기동(\$/ton)		5,501	7,157	6,720	6,645	6,180	5,965	6,148	6,391
니켈(\$/ton)		10,035	12,260	13,245	14,910	12,480	10,595	12,380	12,715
아연(\$/ton)		2,563	3,289	3,309	2,948	2,573	2,511	2,720	2,698
철광석(\$/ton)		78.87	72.61	63.12	65.02	69.24	72.73	85.34	86.68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준 유종	2018	2019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65.06	53.10	53.69	54.97	57.33	54.79
Brent	71.19	61.11	61.38	60.31	61.33	61.03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8년 2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 조선

□ 1월 조선 수주는 2018년 연말 집중 수주 영향으로 부진

- 2019년 1월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13.1% 감소한 58만CGT
- 1월 수주는 LNG선 2척과 VLCC 탱커 등 총 12척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선종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연말 집중 수주 영향 등으로 수주량은 1월 들어 급감
- 전년도 44%의 수주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1월 중 중국 리스사들의 자국 조선사 앞 발주량 급증으로 수주 점유율 27.3%까지 하락
- 1월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12.4억 달러

□ 1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4 point 상승한 130.44(Clarkson)

- 소폭 상승에 불과하나 2019년 초부터 다시 상승하며 시황 회복세 지속

□ 1월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8% 감소한 20.1억 달러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1월
수주실적	241.2 (△27.5)	44.4 (△81.6)	174.8 (293.8)	265.3 (51.8)	12.4 (△2.3)	12.4 (△2.3)
수출실적	401.7 (0.7)	342.7 (△14.6)	421.8 (23.1)	212.6 (△49.7)	20.1 (△17.8)	20.1 (△17.8)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 자원개발

□ 미국 셰일 프로젝트의 40%, 유가 손익분기점 45달러

- 노르웨이 에너지 컨설팅 업체 Rystad에 의하면 최근 2년간('17~'18) 30개 이상 수평정 시추 및 4개월 이상 셰일오일 생산 자산의 유가 손익분기점 45달러
- 상위 50위 셰일오일 자산의 유가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최저 19달러, 최고 46달러
- 셰일오일 기업의 비용은 시추·완결 비용, 리스 비용, 세금 등으로 구성되며, 셰일기업들은 운영 능력 및 자산 품질 향상을 통해 유가 손익분기점 하락 달성
- 상위 자산은 미국 Permian, Eagle Ford, Bakken 분지에 고르게 분포
- 비상장기업인 Mewbourne와 Endeavor가 Permian 하위 분지(Delaware, Midland)에서 개발 중인 유정도 상위 50위내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기업은 유정 설계(well design) 최적화, 비용 구조개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가 손익분기점을 획기적으로 낮춤

3. 해외건설

□ 1월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11.6억 달러

- 2019년 1월 해외건설 수주는 아시아 및 중동 지역 동반 부진
 - 1월 신규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아시아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한 7.7억 달러, 중동 수주액 역시 전년동월대비 80.4% 감소한 2.9억 달러
- 공종별 수주액 중 토목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플랜트, 건축 부문 감소
 - 토목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6.4억 달러, 플랜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한 3.3억 달러, 건축 수주는 91% 감소한 1.2억 달러 기록
- 반면, 올해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 수주 목표액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플랜트 발주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플랜트 수주 기대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1월
수주액	461 (△30.1)	282 (△38.8)	290 (2.8)	321 (10.7)	11.6 (△70)	11.6 (△70)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4. ICT

□ 1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

- 1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한 144.7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94.0억 달러로 50.6억 달러 흑자 기록

* ICT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18.10) 12.2 → (11) △1.7 → (12) △10.0 → ('19.1) △18.2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으로 수출은 전월동월대비 23.4% 감소한 75.4억 달러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18.11) 10.6 → (12) △9.2 → ('19.1) △23.4

** 반도체 수출물량(전년동월대비, %) : ('18.11) 22.1 → (12) 0.3 → ('19.1) △0.7

*** 반도체 수출단가(전년동월대비, %) : ('18.11) 13.0 → (12) △7.8 → ('19.1) △24.5

- 상반기 수요는 고객사 구매 연기·재고 소진 등으로 둔화되나, 주요 반도체 기업의 공급 조절, 신규 서버 플랫폼 출시(2분기) 등으로 인해 하반기 수요는 증가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12.8%)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LCD 수출은(△31.6%)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한 20.0억 달러 기록

* LCD TV 패널가격(55인치, 달러) : ('18.1) 176 → (11) 151 → (12) 145 → ('19.1) 142

**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전년동월대비, %) : 3.2, 수출단가(%) : △10.5

- 휴대폰은 미국, 중국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완제품(13.5%) 수출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부분품(△48.0%) 수출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한 9.5억 달러 기록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월
수출실적	1,762.3 (2.1)	1,728.8 (△1.9)	1,625.0 (△6.0)	1,976.1 (21.6)	2,203.6 (11.5)	144.7 (△18.2)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태양광

□ 1월 태양광 수출은 폴리실리콘 및 모듈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 지속

- 2019년 1월 폴리실리콘 및 모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6.1%, 15.7% 감소하며 수출 부진 지속
 -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57.5% 감소
 - 최근 태양광 수출 부진은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예상
- 2019년 1월 태양전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한 0.3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모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9.3% 감소한 1.22억 달러 기록
 - 우리기업의 미국 모듈공장 가동으로 대미 태양전지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986% 급증하였으나, 모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8% 감소
- 2019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125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모듈 수출 증가 전망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1월
태양전지/ 모듈	13.2 (△36.1)	18.9 (43.2)	19.1 (1.6)	16.7 (△12.6)	1.6 (△15.7)	1.6 (△15.7)
폴리실리콘/ 잉곳	12.7 (△3.6)	12.6 (△0.4)	12.5 (△0.8)	8.3 (△33.6)	0.38 (△66.1)	0.38 (△66.1)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중소기업

□ 수출 · 내수 동반 부진으로 생산지수 · 가동률 위축 지속

- 12월 중소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1.5%, 평균가동률 0.1%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월(106.5) 대비 1.5%, 전년동월(106.8)보다는 1.8% 하락한 104.9 기록
 - 가동률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등 11개 업종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등 11개 업종에서는 하락해, 전월(73.5%) 대비로는 0.1%p 하락, 전년동월과 동일한 73.4%
 - 2019년 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2월보다 5.3p 하락한 75.2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79.5→74.4), 수출판매(84.7→80.4), 자금사정(77.0→73.7) 등 전부문에서 하락
 - 1월 중소기업대출(△4.4조원 →4.3조원)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세 납부를 위한 대출 수요 등으로 증가 전환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7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생산지수	(2015년 =100)	102.2 (6.4)	107.7 (4.9)	106.0 (6.5)	103.7 (-6.3)	97.7 (-4.4)	104.9 (-2.6)	99.6 (-6.0)	106.7 (2.9)	106.5 (-2.4)	104.9 (-1.8)	-
평균 가동률	(%)	72.7	73.2	73.2	73.1	72.3	73.5	72.7	73.5	73.5	73.4	-
자금대출	(조원)	10.3	10.6	14.4	6.2	12.4	8.6	13.9	2.7	4.4	-4.4	4.3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SBHI)	경기전반	77.9	84.2	84.5	84.0	79.6	86.1	80.7	80.7	81.1	80.5	75.2
	내수판매	77.2	83.7	83.6	82.9	79.4	85.0	79.6	80.5	81.2	79.5	74.4
	수출판매	86.8	87.9	88.8	88.4	85.4	90.2	89.3	86.1	90.0	84.7	80.4
	자금사정	75.5	79.2	80.1	79.4	75.5	79.9	76.9	77.2	77.1	77.0	73.7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